



박태환이 14일 광주우시 아오티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200m 자유형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수영 200m 金

아시아新 1위...한국 금 13 쾌조의 스타트

‘마린보이’ 박태환이 2010 광주우시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빛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18·19면> 박태환은 14일 중국 광저우에서 아오티 아쿠아티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80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 이어 자

유형 200m 재패에 성공한 박태환은 조운현, 최윤희, 지상준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네 번째로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날 우승으로 박태환은 도하 3관왕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50m 권총과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진중오·이상도와 금메달을 합작했던 사격의 이대명은 남자 10m 공기 권총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명증시켰

다. 임신 7개월의 주부 명사 김윤미를 앞세운 여자 사격대표팀도 공기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더했다. 사이클 개인추발 김선재와 남자 유도 81kg 김재범도 금메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의 승전보도 잇달았다. 13일 목포고 출신의 유도 김수완·황희태가 금메달을 목에 건데 이어 14일에는 마장마술의 최준상(광주)이 단체전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며 대회 4연패의 주역이 됐다. 대회 첫날 4개의 금메달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은 한국은 14일 오후 8시 현재 사격·수영·사이클 등에서 금메달을 더하며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2개로 종합 2위를 달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本社人事

▲朴鉉奎 부사장

<11월15일자>

대치정국... 광주·전남 '예산 근심'

여야 4대강 등 침에 대립 속 예산 심의 착수
 한나라 단독처리 땀 지역현안 물거품 우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지만 여야가 4대강 사업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여야가 쟁점 사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3년 연속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부안에는 제외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확보한 내년도 지역 현안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70%인 6조7000억원을 비롯,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11조3000억원(수공 사업비 제외 7조5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는 이번에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35%대의 전체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4대 강 사업을 현실적으로 저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양보 없는 관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는데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맞서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3년 연속으로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국회 차원에서 가까스로 확보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광주시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통해 진곡산단 진입도로, 하계U대회 지원 등 11건 797억원의 국고를 추가로 확보했으나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로 '없었던 일'이 됐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국회 상임

단 진입도로 건설비의 경우 8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안 단독 처리로 300억원만 추가(총 2000억)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현재 광주시가 국회 차원에서 예산 추가 확보나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야구 경기장 건립 등 20건에 1890억원대에 이르며, 전남도는 9개 사업(5599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업으로 정해 놓은 상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예산안 협의와 관련된 여야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광주일보 신춘문에 공모

단편소설·시·동화... 12월15일 마감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에'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화경쟁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마감 : 2010년 12월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 062-220-0680)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시십시오.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복투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곳에 중복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11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3개 지자체 지리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끼고 있는 전남을 비롯한 경남과 전북 등 3개 지자체가 지리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3개 도는 최근 공동으로 지리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2월께 지리산 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법,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한다.

또 5월께 3개 지자체도 도지사 가 한 자리에 모여 지리산 세계유

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어 7월~10월께 도 문화재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11월께는 3개 도 공동으로 지리산 세계유산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을 토대로 오는 2014년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석사과정(야간) : 행정학과 80명
 - 광주캠퍼스 (45명, 공공행정 및 경찰행정전공)
 - 남원캠퍼스 (20명, 공공행정), 여수캠퍼스 (15명, 공공행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0. 11. 10. (수) ~ 11. 24. (수)
 - 전형방법 : 일반전형 (필답 20%, 구술 80%)
 - 면접일시 : 2010. 11. 27. (토) 10:00 ~ 18:00
2. 제15기 최고정책과정 : 50명 내외
 - 모집대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홈페이지 참조)
 - 원서교부 및 접수 2010. 11. 15. (월) ~ 2011. 2. 18. (금)
3. 기타 문의사항 : - 행정대학원 행정실 : ☎ (062)530-5196, 2277
 - 홈페이지 : http://cnugpa.kr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clusterday.e-cluster.net

“지속발전 가능한 재생적 클러스터 구축”

The 5th industrial cluster·day 2010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날

일시 2010.11.17(수)~18(목) 11:30~16:3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Kimmadjeong Convention Center

<p>산업단지를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코자 산·학·연이 협력하여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p> <p>올해부터는 정부 광역경제권 육성정책에 맞추어 전국 190 산업단지 대상으로 광역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지역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산업단지 미래상을 함께 그려 보는 시간을 갖고자 “제5회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날”을 개최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left;">구분</th> <th style="text-align: left;">주최산업컨퍼런스_11월 17일(수) 15:00 ~ 16:30_2F 소·중 회의실</th> </tr> <tr> <td>TRACK 1</td> <td>· 전기전자산업 노환권 상무 / 코오롱퍼먼머티리얼(주) 「멤브레인 소재 개발 방향과 산업예의 응용」</td> </tr> <tr> <td>TRACK 2</td> <td>· 자동차산업 홍종희 이사 / 현대자동차(주) 「전기자동차의 국내 개발동향」</td> </tr> <tr> <td rowspan="4">TRACK 3</td> <td>· (미국) Dr. Robert P. Breault (메리조나광산업협회 회장) 「Technology Trends in the Arizona Optical Industry」</td> </tr> <tr> <td>· (일본) Koji Ishida (치토세과학교수) 「Opto electronic Production & Market Trends in Japan」</td> </tr> <tr> <td>· (한국) 신철호 (한국광기술원 기술사업팀장) 「Gwangju Photonics Cluster」</td> </tr> <tr> <td>· (중국) 林立주 (중국강소성의용경제개발구 부국장) 「중국 강소성 광산업 전망 및 발전방향」</td> </t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기업투어 및 기술교류회_11월 18일(목)</th> </tr> <tr> <td>09:30~12:00</td> <td>[기업투어] 첨단단지내 광관련 기업 방문</td> </tr> <tr> <td>14:00~17:00</td> <td>[기술교류회] 기업방문 및 산학협력대학(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방문</td> </tr> </table>	구분	주최산업컨퍼런스_11월 17일(수) 15:00 ~ 16:30_2F 소·중 회의실	TRACK 1	· 전기전자산업 노환권 상무 / 코오롱퍼먼머티리얼(주) 「멤브레인 소재 개발 방향과 산업예의 응용」	TRACK 2	· 자동차산업 홍종희 이사 / 현대자동차(주) 「전기자동차의 국내 개발동향」	TRACK 3	· (미국) Dr. Robert P. Breault (메리조나광산업협회 회장) 「Technology Trends in the Arizona Optical Industry」	· (일본) Koji Ishida (치토세과학교수) 「Opto electronic Production & Market Trends in Japan」	· (한국) 신철호 (한국광기술원 기술사업팀장) 「Gwangju Photonics Cluster」	· (중국) 林立주 (중국강소성의용경제개발구 부국장) 「중국 강소성 광산업 전망 및 발전방향」	■ 기업투어 및 기술교류회_11월 18일(목)		09:30~12:00	[기업투어] 첨단단지내 광관련 기업 방문	14:00~17:00	[기술교류회] 기업방문 및 산학협력대학(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방문
구분	주최산업컨퍼런스_11월 17일(수) 15:00 ~ 16:30_2F 소·중 회의실																	
TRACK 1	· 전기전자산업 노환권 상무 / 코오롱퍼먼머티리얼(주) 「멤브레인 소재 개발 방향과 산업예의 응용」																	
TRACK 2	· 자동차산업 홍종희 이사 / 현대자동차(주) 「전기자동차의 국내 개발동향」																	
TRACK 3	· (미국) Dr. Robert P. Breault (메리조나광산업협회 회장) 「Technology Trends in the Arizona Optical Industry」																	
	· (일본) Koji Ishida (치토세과학교수) 「Opto electronic Production & Market Trends in Japan」																	
	· (한국) 신철호 (한국광기술원 기술사업팀장) 「Gwangju Photonics Cluster」																	
	· (중국) 林立주 (중국강소성의용경제개발구 부국장) 「중국 강소성 광산업 전망 및 발전방향」																	
■ 기업투어 및 기술교류회_11월 18일(목)																		
09:30~12:00	[기업투어] 첨단단지내 광관련 기업 방문																	
14:00~17:00	[기술교류회] 기업방문 및 산학협력대학(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방문																	

주최 **mke**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한국산업단지공단**